

“다종교사회에 있어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에 대한 논평

이 계 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I.

1)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들여야 할 것은 논평자가 교육과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대순진리회에 대해선 문외한이라는 사실이다. 논평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에 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에서 주로 통용되는 난해한 특수 용어들로 논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 발표자의 논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논평에 앞서 논평자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주제 발표자의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일이다. 논평자가 주제 발표논문의 논지와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제 발표자의 논문을 보면 4개의 장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논의의 성격, 2. 종교교육과 종교적 인격, 1) 인격의 특성과 종교적 인격의 유형, 2) 성숙한 종교적 인격, 3. 대순진리회에 있어 종교교육, 1) 종교적 인격의 성숙을 위한 자기개발로서의 공부, (1) 개별적 수련행위로서의 기도, (2) 대순진리회의 공부, 2) 신도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수강과 연수, (1) 수강, (2) 연수, 4. 여전히 남는 문제들.

2) 주제 발표자는 논의에 앞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교육이 所定の 교육시

시스템을 통하여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현장중심의 종교수행 능력과 관계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인 즉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는 현장중심의 종교수행 능력에 따라 배출되는 것이지 소정의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양성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이것을 보면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교육에는 소정의 ‘정형화된 敎育課程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윤교수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교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제 2장에서 고든 올포트(G.Allport)의 인격에 관한 견해, 에두아르트 슈프랑거(E.Spranger)와 윌리엄 제임스(W.James)의 종교적 인격유형을 검토하고 나서 올포트가 제시한 인격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준거로써 ‘자아의 확대’, ‘자아의 객관성’, ‘통합된 인생 철학’을 제시하면서 종교적 인격특성으로서 충분한 분화, 역동성, 도덕적 일관성, 포괄성, 통합성, 개발성(heuristic)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이성중심의 위와 같은 올포트의 종교적 인격과는 달리 정서적인 색채가 짙은 윌리엄 제임스의 성자성(saintliness)을 제시하면서 제임스가 말하는 성자성은 상당한 신비체험이나 궁극적인 가치체험(twice-born)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구현하기 힘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제3장에서는 대순진리회에 있어 종교교육을 논의하면서 가장 원숙한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며, 종교교육의 제1의적 의미는 바로 ‘인격교육’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의 문제는 개개인의 종교적 인격을 심화시키는데 치우쳐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교육은 전적으로 현장중심의 종교수행 능력과 관계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정의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끊임 없는 종교적 신념의 실천을 통해서 도헌(道憲)에 따라(종교지도자로서의) 그 직위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는 正院과 布政院의 임원인데 그들은 포덕의 연원공적과 교화실적에 따라 종교지도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에는 종교지도자를 양성위한 소정의 교육과정(커리)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들 종교지도자들의 인격을 심화하기 위한 개인적 수행체계로서의 修道工夫가 끊임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修道란 ‘심신의 침착과 잠심으로 상제를 영원히 모시는 정신을 모아 단

전에 연마하여 靈通의 통일을 꾀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으로 공경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봉축하는 행위'를 뜻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종교적 수행인 修道와 修練, 그리고 工夫가 있다. 개인적 수련행위로서의 祈禱는 평일기도와 주일기도로써 주일은 월력의 甲巳일로 정해져 있으며, 평일기도는 매일 4시(辰戌丑未時)에 소정의 주문을 봉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기도는 5일마다 반복되는 甲巳일 4시(子午卯酉時)에 소정의 주문을 봉송하는 것이다. 이 밖에 수시수련으로 주문전체를 봉송한 후에 태을주를 계속해서 반송하는 修練이 있다. 工夫는 侍學工夫, 侍法工夫와 祈禱工夫가 있다. 侍學工夫는 칠성주, 운장주, 태을주, 기도주와 도통주이며, 시학방법은 지정된 주문을 지정한 시간동안 연송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降式(종업식/졸업식과 같은)이 있는데 단계에 따라 초강식, 함강식, 봉강식이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이 과정이 후천 5만년 천지도수를 짜나가는 아주 중요한 공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侍法工夫는 시학공부를 마친 반원이 공부하는 상급(고급)과정이다. 이 공부는 '道通의 경지를 얻어 仙境에 참여할 수 있는 공부로써 태극의 진법'이라는 것이다. 이 공부의 과정은 분단학습법으로 진법주를 합동으로 연송하는 공부이다. 공부반의 교체방법은 시학공부와 같고, 강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이 시학공부와 다르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授講과 練修가 있는데 수강은 대순진리회에 종사하는 교직자(교무급 이상)의 자질을 높이고 고급의 교직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練修는 참여인원은 72명으로 2박 3일간 실시되며, 교육방법은 典經(행록/공사/교운/교법/권지/제생/예시)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밖에 일반신도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120명 단위로 5박 6일로 전개되는 제주도 프로그램과 5박 6일로 전개되는 금강산 도장 프로그램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도권 교육기관으로서 대진대학에 대순종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바,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인 해원상생을 교육이념으로 국가와 인류평화에 기여할 교역자를 양성하는 정규 종교지도자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의 道憲과의 관련이 아직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 윤교수의 주제발표 논문의 요지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논평자가 느끼는 몇가지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논평을 대신할까 한다.

3) 이상의 주제발표 논문의 요지에 따르면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교육의 프로그램이 현장중심의 종교수행 능력과 관련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형화 된 종교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인데 논평자가 보기엔 대순진리회 종교지도자들의 인격을 심화하기 위한 개인적 수행체제로서의 수도교육과정 자체가 분명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고, 대진대학의 대순종학과의 아직은 도현과 관련이 없지만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를 정식으로 양성하기 위한 발전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교육은 복선형 교육체제(dual system)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재고해 볼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견해를 수용한다면 대순종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종교교육과 학교교육의 관련, 그리고 종교적 인격의 특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고든 올포트와 에두아르트 슈프랑거,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인격의 유형을 제시하고, 성숙한 종교적 인격의 준거로서 올포트의 ‘3가지 준거’와 윌리엄 제임스의 ‘성자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준거에 따라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지도자의 인격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해서 몹시 아쉬웠다. 왜냐하면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의 인격특성은 대순진리회 종교지도자 교육의 궁극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숙한 종교적 인격과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의 성숙한 종교적 인격을 명료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인데 성숙한 종교적 인격의 특성에 관련한 문제를 왜 서구문화(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양의 학설을 인용하여 논의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道通의 문제는 지극히 동양적인 색채가 짙고, 특히 대순진리회의 종교의례나 주문이 우리 민족문화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한국 巫文化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럴 필요를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논평자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道通의 문제는 단군신화에 나타난 사상이나 동양의 도교나 불교나 유교에서 이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상과 인격으로 도통(초월)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논의해 주었더라면 더 좋을 것 같은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아니라면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논의해 주었더라면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像이 더욱 오롯하게 부각되었을 것이고, 도통의

문제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넷째로는 대순진리회의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가 ‘道通하여 聖자가 되는 것’이라면 도통과 관련하여 종교지도자들의 교육과정이 분석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도통을 중심으로 대순종학과의 교육과정이나 종교지도자들의 수도과정을 설명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특히나 지도자 연수과정에서 呪文의 暗誦이나 連誦이 특징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수련법이 대순진리회의 도통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지 않고 있어서 그런 수련법이 도통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논평자가 보기에 주문의 반복적인 암송이나 연송이 특히 ‘깨달음’을 종지로 삼고 있는 불교에서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혹평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덧붙이는 논평이다. 그러므로 수궁이 간다면 도통과 관련하여 주문의 반복적인 암송이나 연송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밝혀진다면 대순진리회의 현재의 종교지도자 수련 프로그램은 그 나름대로의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주제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섯째로 논평자는 이런 견해를 근거로 주제넘는 생각이긴 하지만 대순종학과의 교육과정을 대순진리회의 정규 종교지도자 양성교육과정으로 하고, 현재의 시학공부와 시법공부 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종교지도자들의 심화과정 내지는 상위 교육과정으로 구성해도 손색이 없는 교육과정으로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여섯째는 작은 문제로서 章節의 체계에서 1)과 (1)을 바꾸어 써거 혼동이 되고 있으니 1=>1)=>(1) 방식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3장의 (1)의 ‘종교적 인격의 성숙을 위한 자기개발로서의 공부’에서 ‘자기개발’보다는 ‘자기계발’로 써야 자연스럽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106쪽), 성숙한 인격의 준거로써 제시한(104쪽)의 개발성(heuristic)은 발견학습에서 쓰는 용어로 직관, 통찰, 깨달음에 가까운 의미라면 ‘통찰성’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4) 끝으로 이 주제를 발표해 준 윤교수 노고덕분에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교육과정을 심도있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혹시 대순진리회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 그릇된 논평을 해서 커다란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그릇되게 논평한 점이 있다면 꼭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논평을 마치면서 산뜻하게 정형화 되어 있지 못한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교육을 심도있게 정리하여 발표해 준 윤교수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것으로서 논평을 대신한다.